

社告

## 안동권씨 대중회 정기총회 안내

2021년 안동권씨 대중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20 회계년도 결산과 2021 회계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의 서면 결의가 완료되면 전 임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중회 사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2695-2483~4(대중회 사무처)

2021년 5월 1일  
 안동권씨대중회 회장

# 2021년 신축년 시조 태사공 춘향제 봉행



시조 태사공 춘향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 3세~9세 선조 설단 관련 설문서 집계 현황

대중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고문과 부회장 및 종무위원 등 임원과 지역종친회장에게 설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 70%, 반대 30%의 비율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대중회 정기총회에서는 3세~9세 선조 설단에 대해 종친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바 있다. 또한 3세~9세 선조 설단은 뜻있는 목지가의 비용 전액 부담을 기반으로 추진 보편의 후손된 도리로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안동권문의 숙원사업임을 종보

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공문화하여 100만 안동권문 족친들에게 홍보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설문 조사결과는 정기총회 시 보여준 만장일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중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단 추진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추후라도 다른 방법 또는 여러 족친들의 의견이 제기될 때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 4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부 회 장		종 무 위 원	
권희철(안양)	1,000,000	권영환(음성)	200,000
권기식(한중도시우호협회장)	1,000,000	권욱형(원주)	200,000
권영욱(합천)	1,000,000	권장승(서울성동)	200,000
		권오정(예천)	300,000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총 : 4,800,000원

안동권씨대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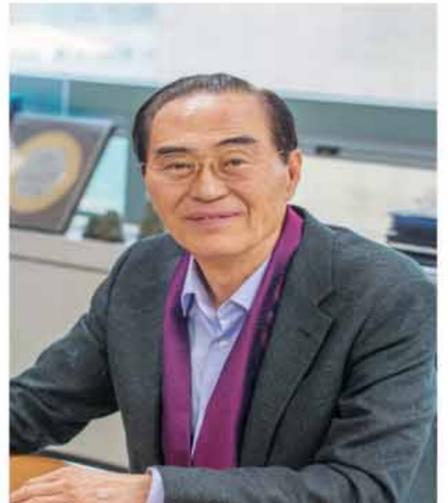
2021년 4월 5일(월) 11시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 춘향제(春享祭)가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숙동 대중회 수석 부회장,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헌관, 제유사, 능곡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골 능동제사(陵東齋舍) 일원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올해 춘향제는 예년과는 달리 종보에 광고한 바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봉행되었다. 춘향제 전날 전국의 족친들이 능동제사에 모여 개최하던 대당회의(大堂會議) 역시 취소되었다. 주회 측은 시도소에서부터 참제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체온도 체크하고 소독약까지 비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권정장 전례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10시 능동제사에서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하여 시조 태사공 초헌관 권혁인(權赫寅) 수임(首任), 낭중공 초헌관 권병근(權丙根) 수임과 헌관, 참제원들이 좌정한 가운데 분정(分定)에 들어갔다. 시조 태사공 향사는 초헌관에 권혁인(權赫寅), 아헌관에 권혁창(權赫昌), 종헌관에 권태환(權泰煥), 축(祝)에는 권용호(權容浩), 잔자(贊者)에는 권영화(權寧華)로 각각 분정하였다. 낭중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권병근(權丙根), 아헌관에 권혁무(權赫武), 종헌관에 권호일(權鎬一), 축에는 권갑현(權甲鉉), 잔자에는 권영채(權寧彩)로 각각 분정하였다. 분정례(分定禮)가 끝나자 11시에 시조

태사공 헌관들과 참제원들은 능동제사 앞에 도열한 후 능곡회 회원들이 운송하는 제수(祭需)를 따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시조 묘소로 향하였다. 시조 묘소에서는 권영화 찬자의 율기(芻記)에 따라 헌관과 참제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엄숙하게 춘향제를 봉행하였다. 산신제를 마지막으로 시조 춘향제가 끝나자 권해욱 대중회 회장을 비롯한 헌관과 능곡회원 등은 시조 묘소 앞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권오의 대중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인 경상북도 안동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는 안동시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데

로 곧바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참제원들에게 설명했다. 참제원들은 낭중공 단소로 이동했다. 예년 같으면 전국에서 수많은 족친들이 참제를 위해 대형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시조 묘소와 낭중공 단소 등 능동제사 일원을 방문하곤 했으나 작년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버스를 타고 참석한 족친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참제원들마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유일한 탈출수단인 백신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편집국장 권형완

# 전문 골판지 제조 기업



대양그룹 회장 권혁홍

